



전체기사

공지

에피클락

유리월

뉴스

퓨어하임

동영상

커뮤니티



산전검사 '더맘스캐닝' 이용자 대상으로 태아 성별 안내 실시

태아 성 감별 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임산부 혈액으로 성별 확인 서비스 제공



지난달 28일 임신 32주 전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EDGC는 더맘스캐닝 이용자 중 요청자에 한해 태아 성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더맘스캐닝 서비스 이용고객은 검사 병원에 요청하면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다.

EDGC의 산전검사 서비스인 더맘스캐닝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방법(NGS)을 기반으로 임산부의 혈액 내에 있는 태아의 DNA를 분석해 태아의 유전자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비침습 액체생검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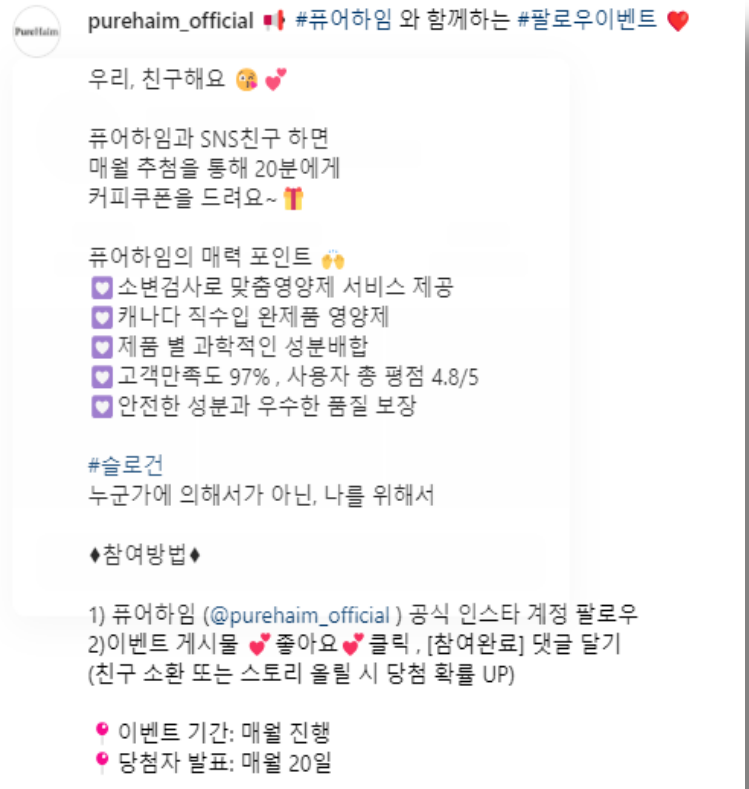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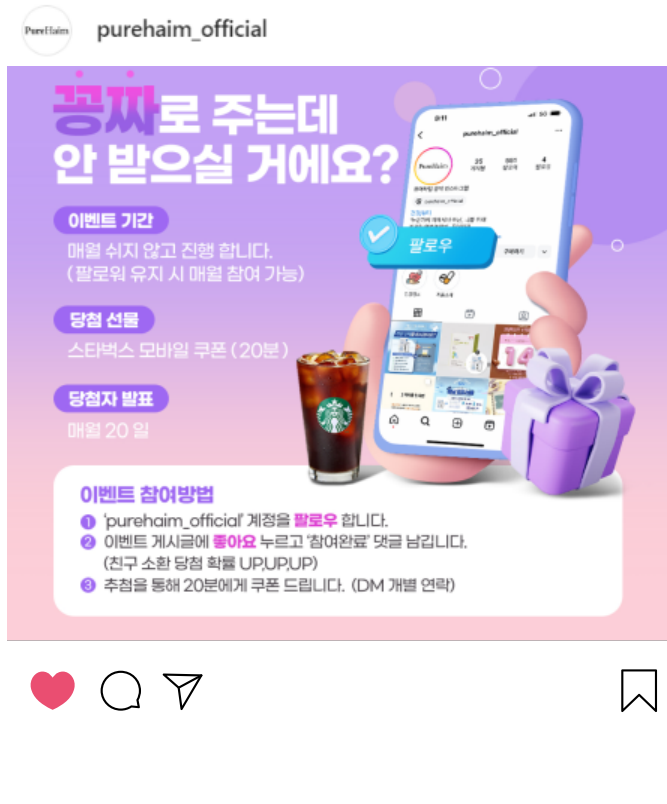
단태아의 경우 임신 10주, 쌍태아는 임신 12주부터 검사 가능하며, 임산부 혈액 내 미량으로 존재하는 태아 DNA를 추출해 태아의 성별 식별, 염색체 상태 확인을 통한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증후군 등 염색체 수적 이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임산부의 혈액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유산이나 양수파열 위험성이 없어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다.

자세히 보기



퓨어하임 공식 인스타그램 'purehaim_official' 팔로우이벤트 쵡쵡로 주는데 참여 안하실거예요??



PureHaim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 퓨어하임(@purehaim_official) 공식 인스타 계정 팔로우

☒ 이벤트 게시물 '좋아요' 클릭 ♥

☒ [참여완료] 댓글달기!
 친구 소환 또는 스토리 공유 시 당첨 확률 ↑↑

NEWS



태아 성별 고지 합법화...임신 몇주차부터 알 수 있나

초음파·양수 검사는 임신 17주차...NIPT는 임신 7주차 판별 가능

37년간 금지됐던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전보다 조기에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된 가운데 얼마나 일찍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지가 관심이다. 지난 30여년간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태아의 성별을 가장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신 7주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보기 →](#)


소변거품, '아침'에는 괜찮고 '오후'에는 문제인 이유

일반인도 하루 300g까지 소변 통해 단백질 배설... 아침보다 오후에 거품 많고, 지속적이면 단백뇨 의심

보통 소변에 거품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 '단백뇨'를 의심하면서 콩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소변을 통해 단백질을 배출한다. 그러면 어떻게 의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콩팥질환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단백뇨'에 대해 알아본다.

[자세히 보기 →](#)


3억 노년 인구 등에 업은 中, 실버산업은 호황

안티에이징 시장은 올해 150억달러(약 19조7000억원) 규모 예상

보도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성장 둔화라는 '뉴노멀'이 고착화됨에 따라 대다수 업계가 규모를 축소하거나 전략 재고에 나서고 있지만 노년을 대상으로 한 실버 산업만큼은 예외다. 중국이 급속도로 고령화하고 있어 노화 방지 화장품부터 노인 요양시설까지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산업이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기 →](#)